



주일설교 말씀나눔지

2023. 3. 26

「마가복음 마흔아홉 번째 말씀」

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

Three Characteristics of a Person Who Resolves Conflict

마가복음 14장 1-9절

-
1.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
 2.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
 3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
 4.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
 5.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
 6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
 7.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
 8.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
 9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
-

1.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‘갈등은 사랑의 수업료와 같다.’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?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봅시다.
2.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? 자신의 습관과 반응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.
 - 1) 미리 대화를 멈추고 회피한다.
 - 2) ‘저 사람 왜 저래’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한다.
 - 3) 가능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으면서 관계를 이어간다.
 - 4)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서로 상했는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자 다가간다.
 - 5) _____
3. 문요한 박사님이 지켜본 "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"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아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 - (1) 절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했거나, 서로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.
 - (2)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서로 상했는지, 마음을 열고,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.
4.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고 가롯 유다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.

5.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잡아보았습니다. 아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서,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

1) 상대의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한다. 결국 존중함이 없다. (4, 5)

2) 은혜를 누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변두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였다.

- 나병환자 시몬 (3)
- 나사로 (요12:1-2)
- 막달라 마리아 (눅8:1-2)

3)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(계산)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.

- 사랑과 감격을 돈으로 환산해보니 300 데나리온 (5)
- 하나님(예수님)은 은화 30 (마26:14-15)
- ※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900 데나리온

6. 다음 말씀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눠봅시다.

고전13:5 (확대번역성경 Amplified Bible)

... 사랑은 나에게 행해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, 나에게 주어진 상처들을 계산해서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다

7. 그리고 고후2:8과 2:11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봅시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.

